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영향력과 인식 연구

김장현
디자인 팩토리

The Study on the Influence and Perception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Jang-Hyeon Kim
Design Factory

요약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교복 변형의 행동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조명해 보고, 그 함의점을 제시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현대 사회에서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줄어든 교복 사이즈의 일반화, 학교 규정에 대한 실효성 저하, 선정적인 교복 광고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학생 본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물질화 경향의 가속화, 교복 변형에 대한 기회비용의 감소의 견해가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학생의 독립적 선택에 대한 자율성 부여, 청소년기 유행에 대한 일시적 참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 실현의 견해가 나타났다. 또한, 교복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함의점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교복 변형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고, 규제의 적절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More than 90%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wear school uniforms, and school uniform modification is an ongoing issue among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and how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is perceiv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influence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was found that the generalization of school uniform size greatly reduced, the effectiveness of school regulations decreased, and the spread of suggestive advertisements. Second, the negative perceptions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included reducing cognitive ability toward student responsibilities, accelerating materialism tendencies, and reducing the opportunity cost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Positive perceptions included giving students autonomy for independent choice, temporary participation in adolescence trends, and realizing effective image-making to reveal their individuality. The biggest reason for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was the influence of the mass media. Third, the implication for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is that not only high school students, but also schools and our society as a whole, need to accept changes to school uniforms and make a holistic effort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s.

Keywords :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d Persons' Perspectives, Social Influence

*Corresponding Author : Jang-Hyeon Kim(Design Factory)

email: jamie8122@naver.com

Received July 26,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August 18,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1986년 교육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의 선택적 착용을 허용한 이래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95%이상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1]. 교복은 학생이라는 착용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주는 제복으로, 소속 학교의 의식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학생다운 행동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각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은 동일한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함에 따라 교복으로 자신의 개성이나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교복 변형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교복 변형이란 기존의 교복 사이즈에서 신체에 핏하게 줄여입는 교복의 수선을 뜻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변형 교복의 엄격한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해 교복 변형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시, 이에 대한 해결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향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한 존중이 올바르게 이루어 지지 않은 과거시기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에 진취적인 성향을 띄며, 자기표현의 욕구와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2]. 즉, 기성시대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지하고, 교복 변형을 하나의 일탈로 여겨지지만, 현재의 학생들에게는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억압으로 간주[3]되어 서로간의 이해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적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주목하고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조망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기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교복 산업에 있어서 고등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 및 서술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교복의 개념 및 교복의 변천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단행본, 전문서적 및 인터넷을 토대로 고찰을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로

는 현대 사회에서 교복이 미치는 영향력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문기사를 선정한 배경은 신문은 해당 시기 일련의 사회 현상을 정기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리는 공적인 매체[4]임으로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문제로 조명되는 교복 변형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복 변형을 경험한 20대 82명을 대상으로 서술형 응답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교복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착용하도록 지정한 제복”[5]이라 명명되며, 영문으로 “School uniform”이라 표기된다. 교복은 학생들의 면학의식 고취와 원만한 단체 생활을 위해 학교가 학생의 신분을 상징화하고, 규정짓기 위한 의도적 목적성을 함양하고 있다[6].

교복에 관련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Sung[7]은 교육적 평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호로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Yang[8]에 의하면 교복은 타 집단과의 선별을 가능케 하여 학생 신분이나 학교의 대표성을 표출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소속감 부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나 학교의 자부심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목적을 갖는다고 하였다. Kim and Kang[9]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학생신분에 대한 과도한 노출, 개성과 미적 감각의 결여 등과 같은 단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교복은 학생의 신분 또는 학교의 대표성을 자아내는 표상체라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개개인인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고 규제하고자 하는 통제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교복이 학생의 신분적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은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특성상, 교복을 장시간 착용하게 된다.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10]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지적으로 미성숙 시기에서 성숙한 상태로의 점진적 성장을 이어나가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청소년들의 자아의식은 증대되며,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됨[11]으로 의복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연관성에 대해 Kim[12]은 자신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 시, 안정감과 자신감의 심리를 갖게 되는 반면, 자신의 의복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거나 주위의 동료들과의 의복과 융화되지 못한다고 인지할 경우, 불안감의 생성 및 자기비하, 및 동료와의 교류를 회피하려 하는 대인 기피 현상까지 생긴다고 하였다. 즉, 교복은 단순히 제복으로서의 의복이 아닌, 청소년의 심리나 정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핵심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은 교복의 수선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의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관리 및 사회적으로 동급의 학우들과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의 획일화된 교복은 패션의 다양성 또는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고자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전향적 자세를 요구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교복 변형이 사회가 규정한 학생 신분들의 틀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아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의미한다.

교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교복의 착용 태도와 만족도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9,12-14]가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로, 중·고등학생들의 신체 치수에 따른 교복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11,15,16], 세 번째로, 교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17-19]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교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연구의 대상을 점진적인 성장의 불완전한 시기를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교복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높을 수 있다는 한계를 함양하고 있다. 현재 과도한 교복 변형이 사회적 이슈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을 고려해본다면, 보다 중립적인 측면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경험적인 측면과 생애주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간교복 변형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성인기의 20대를 대상으로 교복 변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함의점을 논하고자 한다.

2.2 교복의 변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우리나라 교복은 1886년 최초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에서 착용한 다홍색의 치마저고리 복장을 그 효시로 보고 있다[20,21]. 양장의 교복은 여성의 경우 1907년 숙명 여학교에서 자춧빛의 원피스의 형태로, 남학생의 경우 1890년대 초 배재학당의 남학생들이 착용한 검은 양

복의 형태가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20,22]. 1920년대 말까지 교복은 한복과 양장이 혼용되어 착용되었지만, 일제강점기의 민족말살정책이 본격화되던 1930년대를 기점으로 거의 모든 교복이 양장화로 개정되었고, 일본식의 검정 교복이 주를 이루었다[23]. 1945년 해방이후 1980년대 초까지 중·고등학생의 교복 착용은 의무화였으며, 1968년 문교부의 평준화 시책으로 교복의 형태가 통일되기 시작하였다[24,25]. 교복의 착용은 계절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여학생은 하계 시 윙칼라 블라우스에 감색이나 검정색 플레어스커트를, 동계 시, 감색이나 검정색 상하의를 주로 착용하였으며, 남학생은 회색 교복을 하계 시에, 검정색 스탠드칼라의 교복을 동계 시에 주로 착용하였다[25]. 1982년 정부는 학생들의 개성 존중과 미적 품성의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교복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어 중·고등학교에서 평상복을 착용하였지만,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및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탈선행위의 증가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25,26]. 이에 따라 교복 착용의 필요성이 재공론화되었으며, 1985년 교복 자율화 보완조치와 함께 1986년 2학기부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과 지역사회,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교복에 국한하여 교복의 착용을 허용하였다[27,28]. 1990년대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교복의 브랜드화를 진행하였으며, 스타마케팅을 통한 브랜드의 이미지 구축 및 교복의 디자인을 강조하여 교복의 유행을 주도하였다[29]. 현재 다수의 교복 브랜드에서는 소재의 고급화와 함께 야구점퍼, 후드 티 등 편안함과 착용감이 반영된 교복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다[30]. 또한, 정부 주도하에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통하여 한복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도 등장하게 되었다[31].

이처럼 교복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 왔다. 과거의 교복은 학생의 신분이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최근 교복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렴한 형태로 점차 변모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학생들의 교복 변형에 대한 행동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현대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

본 장에서는 교복 변형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토대로

교복 변형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010년 이후 교복 변형과 관련된 신문기사 142건을 수합하였으며, 기사의 제호와 내용 분석을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은 첫째, 줄어든 교복 사이즈의 일반화, 둘째, 학교 규정의 실효성 저하, 셋째, 선정적인 교복 광고의 확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

3.1 줄어든 교복 사이즈의 일반화

과거의 교복은 학생의 신분을 상징하고, 규정짓는 표상체로 존재하였지만, 현대세대들에게 교복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인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획일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교복의 변형을 행하여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짧고 타이트한 교복 치마, 남학생의 경우 신체에 밀착된 스키니 교복 바지로 수선하는 행위가 하나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 교복 브랜드들은 학교의 규정사항보다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짧고 타이트한 교복을 출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32]. 이에 대하여 교복업체는 교복의 소비자는 학생이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상품을 제시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33]. 하지만, 교복 변형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의적으로 교복을 수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정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오해와 별점을 부여받기도하며, 교복을 교환이나 재수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32]. 더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선에 따른 타이트한 교복은 활동성 감소로 불편함이 가중되거나, 소화불량 또는 생리통 등의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34]. 이 같은 단점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변형 현상은 학생들의 일시적 유행 현상이 아닌, 교복 사이즈의 전체적 변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변형 교복의 사이즈가 일반화된 규정 사이즈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2 학교 규정의 실효성 저하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학교의 규율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적 접근을 더욱 난해하게 만든다. 교복은 학생의 신분과 학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규범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규칙에 따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의 규율 간의 방향성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

항의 개정을 통하여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규제 항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변경하였다[35]. 또한, 서울시의 교육감은 교복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몇몇 교육청에서는 여학생들의 짧아진 교복에 따라 책상 가림 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36,37]. 이와 더불어 서울 교육청에서 제시한 체벌금지 매뉴얼 중 ‘변형교복을 입는 경우’에 대한 매뉴얼은 단지 재활용 교복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교복 변형을 제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38]. 이 같은 교육부 및 산하 교육청의 대응들은 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을 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있음을 뜻하며, 학교의 제재 규칙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어 교육 현장의 제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명확한 기준의 제시 및 애매모호한 태도는 학칙을 규정하는 학교, 지도와 제재를 행하는 교사들, 및 학칙과 제재에 반감을 갖는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서로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3.3 선정적인 교복 광고의 확산

교복 변형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됨에 따라 교복 브랜드들 또한 광고를 통하여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교복 광고는 신체적 실루엣이 강조되는 디자인의 홍보를 넘어 신체를 지나치게 물신화하거나 과도한 성적 묘사를 통해 교복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퇴색하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다. 한 교복 브랜드는 교복 광고에서 교복을 착용한 몸매를 과시한 듯한 연예인들의 포즈와 야릇한 표정, “스커트로 깎아라! 섹시 스커트”, “코르셋으로 조여라! 코르셋 재킷”의 광고의 카피를 제시하여 선정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39]. 이는 다른 여러 교복업체의 광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Girl fit”, “Boy fit”, “라인이 예술이다” 등 몸매를 강조하는 직설적인 광고의 문구와 걸그룹의 비정상적인 체형을 내세우면서 학생들에게 소구하고 있다[40]. 이는 교복 업체들이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교복 광고에 선정적인 문구나 비현실적인 연예인들의 신체적 이미지를 적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의 기저에는 청소년기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와 10대들의 교복 변형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즉, 교복 변형에 대한 현상이 교복 업체들의 광고에 대한 방향성까지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미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과 동시에 교복에 대한 왜

곡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교복 변형은 축소된 교복의 사이즈의 일반화로 인하여 교복의 착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에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약화되어 교사들의 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교복 브랜드들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교복 변형을 상업화하여 신체를 왜곡하는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를 선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교복 변형이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자,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자율성 보장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교복 변형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의 부재로 한계점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복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교복 변형에 대한 양면성과 서로 상이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자하는 열린 태도의 선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인식

탐구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복 변형 행동을 경험해 본 20대 82명에게 서술형 응답을 수행하였다. 서술형 응답은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한 가지를 선정하고,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제한 개방형 질문을 적용하였다. 제한 개방형 질문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에 국한된 응답을 요청을 하는 설문지법으로, 연구자가 기대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응답을 수합할 필요성이 제기될 시, 효과성이 높으며, 응답자에게 질문 응답에 대한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강점을 함양하고 있다[41].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20대 응답자들의 인식의 빈도를 고찰해본 결과, 28명(34.14%)이 부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있었으며, 54명(65.86%)이 긍정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분석

교복 변형 행동을 경험해 본 서술형 응답자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하여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학생 본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이다. *“교복의 도입 의도를 벗어난...”,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만명만...”, “...학생 본인이야지를 망각시킬 수...”, “...교복의 의미자체가 흐려진다.”*와 같이 응답자들은 교복을 수선하는 자체가 교복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몰각한 일탈임을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기 학교는 사회 학습의 장으로, 사회적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환경이다[42]. 교복의 착용은 단순히 학생 신분의 표상화를 넘어, 학교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복장 착용의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Oh, et al.[43]에 의하면 모든 사회에는 상황에 적합한 복장에 대한 그 사회의 암묵적인 드레스 코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교복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어울릴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지속적으로 변형하는 행동은 학교라는 사회의 일원이자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윤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학생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두 번째 배경으로 몰신화 경향 심화이다. *“...교복 수선을 하고 싶지 않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 “...그물에 뒤쳐지거나, 나만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주류로 생각하고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배척하는...”, “...무리에 소속되지 않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의 응답처럼 교복 변형이 자의적이 아닌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건적 수용으로,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을 시,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교복 변형 행동이 학생들간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실천적 행위이며,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또래의 집단에서 소외되고, 배제됨으로서 은연중에 고립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타이트하게 교복 치마를 줄이면 잘 나가는 학생이며, 안 줄이면 친구들에게 소외당한다고 언급하였다[44]. 이는 교복의 변형이 학생들의 인간관계 형성에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학생들은 타인을 판단함에 있어 물질이나 외모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며, 인간성 상실이나 인간 소외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교복 변형은 청소년기 올바른 인격 및 교우관계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세 번째 배경으로 교복 변형에 대한 기회비용의 감소이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심리적 강박관념으로...”, “...혈액 순환의 장애와 림프계의 순기능을 못 하게 되어...”, “...범죄의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교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의 응답처럼 응답자들은 교복 변형을 선택했을 시,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학생들은 변형된 교복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장애나 소화불량, 생리통 등 성장기 신체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한 불편함 증가, 속옷의 노출이나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복의 수선으로 인하여 시간과 돈의 손실이 발생하며, 신체의 성장과 함께 교복을 재구매하거나, 학교의 규칙을 피해 여벌의 교복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또한, 교복 변형은 학교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으로 학교 공동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과도한 성적 매력을 강조하여 잘못된 성의식의 형성 및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교복의 변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기보다는 외양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게 되어 배움에 대한 가치를 등한시 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면학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복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교복 변형에 대한 기회비용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4.2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분석

교복 변형 행동을 경험해 본 서술형 응답자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하여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학생의 독립적 선택에 대한 자율성 부여이다. “...수선해서 입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 “...자율롭게 입는 권리를 침해...”, “...개인의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으로서 자신의 미의 욕구를 표출할 수단... 교복...”, “...학교의 강압적인 태도는 학생들이 교복에 돈을 더 쓰는 역효과를...”라는 응답처럼 교복 변형은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교복에 반영된 것으로, 이를 규제하는 교육적 현실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자율성이란 개인의 행동 및 자기조율을 결정할 수 있

며, 타인의 감정이나 의지와는 달리 본인의 결정으로 자신의 행동 또는 미래의 계획을 설정할 수 있음[45]을 의미한다. 즉,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미성년의 나이를 벗어나 인간적 존재로서 청소년기 학생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 학생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해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격을 함양하고 있으며, 규제보다는 스스로 선택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존중감이 높은 주체적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교복 변형을 통제하는 것은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훈육이 아닌, 학생들 본인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학생들의 자립적 성장 과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두 번째 배경으로, 청소년기 유행에 대한 일시적 참여이다. “...하나의 스타일...”, “...멋지고 유행이며 잘나가는 것의 상징이라는...”,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생각...”, “...개인의 개성을 살린 교복 수선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남들이 하는 유행을 따라...”와 같이 응답자들은 교복 변형을 청소년기 하나의 유행이자, 학창시절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언급하고 있다. 유행이란 특정한 사회 안에서 일정한 사람들이 비슷한 문화 또는 행동양식을 일정한 시간 동안 공유하는 것으로[46], 유행의 형성은 서로간의 구별 및 동조 욕구에서 비롯된다[47]. 교복은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상체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통일성과 일반성을 함양하고 있지만, 교복 변형은 이에 대하여 학생들 서로간의 시각적 차별화를 지향하고, 이 같은 행동에 동조하여 소속감을 느끼고자하는 일시적 수용 행동으로, 하나의 유행을 형성함을 뜻한다. 또한, 유행은 집합적인 대중의 취향이 세련된 것에 의한 과정이며, 현재의 그대로의 유지보다는 변화를 추종한다[48, 49]. 다시 말해서, 교복 변형의 행동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왔던 기성세대의 교복 문화에 대한 반항이자, 기존의 교복에 보다 세련미를 더하여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하나의 변화 지향적인 움직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세 번째 배경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 이미지 메이킹의 실현이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수선...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수선하지 않는 친구와 전혀 다른 분위기...자신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다리가 길거나 허리가 짧

거나 하는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 . .”, “교복은 소속감을 느낄 수 . . . 하지만,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없는 느낌 . . .”과 같이 교복 변형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학생 개인이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낸다는 특성상 의복에서 교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즉, 자신의 개성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 교복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뜻하며, 교복의 수선은 자신에 대한 내적 만족뿐만 아니라 이성 또는 타인에게 호감도를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개성을 구현하고자 행해지는 교복 변형은 자신의 단점을 보강하고,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미지 메이킹의 하나로서 신체적 콤플렉스로 인해 결여된 자신감의 회복 및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변형된 교복이 학교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드러내는 교복의 역할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고 사료된다.

4.3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배경의 인식 분석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의 원인에 대한 가장 큰 배경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지목하고 있었다. “ . . .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입은 교복 . . . 수선하여 입은 모습들 . . .”, “라인과 몸매를 강조하여 광고하기도 . . .”,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배우들이 학교 교복을 입고 . . . 짧고 몸에 달라붙는 교복 . . .”, “. . . 무대 위에서 가수들이 입는 스킨룩, 학교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입는 교복의 수선하는 . . . 모습이 화면에 많이 보이면서 . . . 따라가게 . . .”라는 응답처럼 대중매체에서 나타난 변형 교복을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Lee[50]에 의하면 학생들은 청소년기의 호기심이나 대리만족을 위해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모방한다고 언급하였으며, Lee[5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중매체 중 TV매체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보를 별다른 여과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였다. Kim and Lee[52]는 청소년들이 TV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연예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이들과 동일시하고자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이상화하거나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연예인들의 교복 형태를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수용하여 교복을 변형하고자 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표출

하게 되는 것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이 교복 변형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대중매체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학교에서의 제재는 개인적인 심리나 행동의 일시적인 통제일 뿐이며,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를 통한 규제와 조정이 요구되며, 방송매체 종사자들의 책임의식 함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함의점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 및 교복 변형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어 교복의 변형과 관련된 교육 기관, 학생, 교사를 중심으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기관의 측면에서 교육 관련 정부 기관과 학교간의 교육적 방향성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교복이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교육 정부 기관과 학교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정부 기관에서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학교나 교사들은 교복 변형에 대한 제재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난해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누구든지 쉽게 특정 정보에 대한 탐색이 매우 용이하다.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대한 불합리함을 교육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교복 변형의 합리성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교복 변형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잃게 된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명명한 애매모호한 규정은 다양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음에 따라 교복 변형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의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정부 기관에서 보다 자제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공시하여, 학생들이 교복 변형에 대한 제재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요구되며, 교육 관련 정부 기관이 학교나 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을 통하여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교복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복 변형의 행동을 하는 배경은 앞서 살펴본 교복 변형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시점의 교복 변형 행동은 자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청소년기 학생들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의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된 부분은 없으며, 학생다움을 표방하는 교복에 대한 의미 또한 변경된 부분은 없다. 현재 학생들이 교복 변형에 대한 의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문화적 생산자이자, 주체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경직되어 있는 제도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이 교복 변형의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학생 본분의 올바른 자세를 스스로 인지하고, 교복 변형의 적절한 수위 조절을 통한 자발적 실천을 이행한다면, 교복 변형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닌,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존중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교사들의 측면에서 교복의 변형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 보다는 합리적인 논의에 근거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교복 변형의 영향력과 교복 변형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칙에 의거한 강압적인 제재라고 언급하였다. 현대사회는 각자의 개성이 매우 중요시 되는 시대로,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모습만을 요구하는 것은 시류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임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 편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창시절 교복 변형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또한, 미연에 이를 차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하는 의미는 매우 유효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견해를 경청하지 않은 채, 교복의 변형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를 가하는 태도는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더 깊은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다. 실례로, 학생들의 불가피한 상황은 경청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제재를 가하여 억울함을 감응한 사례가 있음을 참작해볼 시, 학생들과의 소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사들은 교육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교복 변형을 하면 안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찾아가는 접근을 시도해야만 한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움직임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입장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갖고, 제재의 합리성과 기준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자세로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공감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인식 탐구를 통하여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일련의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기사를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고찰해본 결과, 크게 줄어든 교복 사이즈의 일반화, 학교 규정에 대한 실효성 저하, 선정적인 교복 광고의 확산의 세 가지로 축약해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복 변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학생 본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물신화 경향의 가속화, 교복 변형에 대한 기회비용의 감소의 견해가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학생의 독립적 선택에 대한 자율성 부여, 청소년기 유행에 대한 일시적 참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 실현의 견해가 나타났다. 또한, 교복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서 발원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교복 변형 행동과 관련된 영향력과 인식 탐구를 토대로 그 함의점을 제시해보면, 교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개선해나가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란 자유와 규제에 대하여 늘 갈등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하나의 커다란 단위로서 고등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는지, 교복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학생들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학생들의 교복 변형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 또한 교복에 대한 자신만의 일방적인 자율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고등학생이라는 본분과 교복이 함양하고 있는 목적 및 고등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규율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하여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관련 기관,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교복 변형의 변화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규제의 적절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교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S. Ryu, K. Park, H. Kim, "A study on alteration behavior by high school girl students' satisfaction for school unifor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35, No.4, pp.442-454, 2011.
DOI: <http://dx.doi.org/10.5850/JKSC.T.2011.35.4.442>
- [2] K. Choi, "A moral-philosophical approach to establishing the desirable juvenile culture in the present information-oriented socie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pp.1-65, 2011.
- [3] "I feel like I'm in prison even though I haven't committed any crime" [Internet]. Kookminilbo [cited 2021 May 29], Available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93802&code=61121111&stg=ws_real(Accessed June. 21, 2021)
- [4] Newspaper [Internet].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cited n. d.], Available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2944> (Accessed June. 28, 2021)
- [5] School uniform [Internet]. Naver dictionary [cited n. d.], Available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b754b9b6fed471896583aa24fd4d2e6>(Accessed January. 22, 2021)
- [6] School uniform [Internet]. Doopedia [cited n. d.], Available From: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method=view&MAS_IDX=101013000717270 (Accessed January. 22, 2021)
- [7] Y. S. Sung, "The Influence of school uniform, family and school education on adolescents' delinquenc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cation Design*, Vol.21, No.-, pp.95-110, 2013.
- [8] E. Y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image of the girls' high school design based on their demands for uniform improvement", Master's thesis, Gwongsa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p.1-97, 2007.
- [9] Y. Kim, H. Kang, "Attitudes toward school uniform and cloth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5, No.2, pp.13-19, 1981.
- [10]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Adolescence psychology", Kyoyookbook, pp.1-485, 2004.
- [11] O. Hahm, K. Won, "A study on middle school girls' somatotype and the standardization of school-uniform Size", *Journal of Living Science Research*, Vol.27, No.-, pp.87-104, 2001.
- [12] S. Kim, "The effect of school uniform on students' self-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pp.1-70, 1993.
- [13] Y. Lee, H. Kim, K. Kim, "A study on wearing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uniform's reform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gir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11, No.3, pp.1-15, 2009.
- [14] J. Lee, "Study on comparison of actu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school uniform wearing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p.1-80, 2007.
- [15] M. Choi, M. Son, "A study on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and school uniform fitting evalu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50, No.7, pp.37-48, 2012.
DOI: <https://doi.org/10.6115/khea.2012.50.7.037>
- [16] E. Ryu, H. Choi, K. Yi, "Analysis of boys' body sizes to suggest a sizing system for middle and high school unifor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37, No.4, pp.598-617, 2013.
DOI: <https://doi.org/10.5850/JKSC.T.2013.37.4.598>
- [17] S. Choi, "The standard school uniform design developments for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of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Fashion Design*, Vol.15, No.2, pp.57-74, 2015.
- [18] J. Mun, H. Na, "The development of school uniform design for the post-digital genera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14, No.5, pp.758-765, 2012.
DOI: <https://dx.doi.org/10.5805/KSCI.2012.14.5.758>
- [19] J. Shin, "Comparison of brand-name school uniform patterns for middle school boys and the development of school uniform patterns by students' body shape, using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23, No.1, pp.143-154, 2021.
DOI: <https://dx.doi.org/10.30751/kfcda.2021.23.1.143>
- [20] S. Yoo, "History of changes in Korean women's western clothes", *Iljisa*, p.1-353, 1990.
- [21] C. Jeong, "80 years of Ewha",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pp.1-823, 1967.
- [22] S. Kim, S. Kim, O. Kim, S. Lee, K. Cho, "A study of the uniforms fo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Bu-Hak*, Vol.9-10, No.-, pp.45-50, 1977.
- [23] Y. Nam, "A historical study on the change of school uniforms for female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Master's thesis, Soodo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45, 2001.
- [24] H. Kim, "A study on the degree of contentment with the design of girls' school uniforms",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p.1-97, 2001.
- [25] Changes in school uniforms seen in records [Interne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ited 2014 February 13], Available From: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44012>(Accessed January. 22, 2021)
- [26] M. Han, E. Lee, "A study related to adolescent students' school uniform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1, No.2, pp.23-43, 2009.
- [27] H. Shin, "Studies on the reutilization of used school uniform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94, 2008.
- [28] J. Lee, "An exploratory study to reflect the image of Hanbok into highschool uniforms",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pp.1-66, 2007.
- [29] M. Han, "A study on the girls' high school uniform design",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pp.1-75, 2009.
- [30] Baseball jumpers and hoodies are now 'school uniforms'..Changed trend of school uniforms [Internet]. Dailycar [cited 2019 December 26], Available From: <http://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35478>(Accessed June. 21, 2021)
- [31] Students "Hanbok school uniform, stylish and pretty" parents "Easy to manage" [Internet]. Nongmin [cited 2021 February 1], Available From: <https://www.nongmin.com/nature/NAT/ETC/332948/view>(Accessed June. 21, 2021)
- [32] Companies that sell school uniforms that have been shortened and narrowed according to trend [Internet]. Kookje [cited 2013 July 15], Available Fro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130716.22017201216>(Accessed June. 21, 2021)
- [33] Parent group protests against "sale of modified school uniforms" [Internet]. Cheonjilbo [cited 2010 June 7], Available From: <http://www.newsci.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38>(Accessed June. 21, 2021)
- [34] Why did school uniforms become miniskirts? [Internet]. Mediatoday [cited 2015 October 18], Available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00>(Accessed June. 28, 2021)
- [35]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hair, dress, mobile phone school rules' deleted [Internet]. Jeonbukilbo [cited 2019 September 1], Available From: http://www.ji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103&sc_section_code=S1N31&sc_sub_section_code=S2N55(Accessed June. 28, 2021)
- [36] How to view the controversy over the length of school uniform skirts [Internet]. Hankyung news [cited 2011 June 27], Available From: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1052429851> (Accessed June. 28, 2021)
- [37] Deletion of school regulations such as hair and clothes... Intensifying school conflict [Internet]. Korea Education Newspaper [cited 2020 February 25], Available From: <http://www.hangvo.com/news/article.html?no=90850> (Accessed June. 28, 2021)
- [38] Guidance for problem students... 'Customized response' instead of corporal punishment [Internet]. Yonhapnews [cited 2010 November 14],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01113076500004> (Accessed June. 28, 2021)
- [39] 'Park Jin-young, school uniform advertisement controversy...What did he lose?' [Internet]. Kstarnews [cited 2015 October 21], Available From: http://www.starnews.com/starnews/news_view.php?article=000000010026&cg1(Accessed June. 30, 2021)
- [40] Controversy over 'sexy code' in school uniforms [Internet]. Weekly donga [cited 2015 October 26], Available From: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151091/1> (Accessed June. 30, 2021)
- [41] Questionnaire method [Internet]. Namuwiki [cited 2020 July. 12], Available From: <https://namu.wiki/w/%EC%A7%88%EB%AC%B8%EC%A7%80%EB%B2%95>(Accessed June. 22, 2021)
- [42] H. Moon, "The relation of the perceived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adolescent",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66, 2005.
- [43] K. W. Oh, J. E. Kim, H. J. Jung, Y. S. Sung, S. N. Kim, "Fashion connection", Gyomonsa, pp.1-259, 2019.
- [44] "If you don't reduce the length, you will be bullied" 23cm cut 'super-mini school uniform'[Internet]. SBS [cited 2013 March 8], Available Fr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669297&plink=OLDURL(Accessed June. 30, 2021)
- [45] E. Deci, R. M. Rya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pp.1-372, Springer, 1985.
- [46] H. W. Kang, G. S. Lee, E. R. Goh, M. S. Jung, M. W. Nam, Y. J. Kim,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Kyomunsa, pp.1-405, 2012.
- [47] E. Y. Lee, "Fashion marketing", Kyomunsa, pp.1-462, 1997.
- [48] M. E. Roach, J. B. Eicher, "Dress, adornment & the social order", John Wiley & Sons, pp.1-446, 1965.
- [49] K. Anspach, "The why of fash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p.1-378, 1967.
- [50] J. Lee,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popular culture in a teenager subculture group",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pp.1-79, 2003.
- [51] S. Lee, "Adolescent imitation behavior by preference of entertainer and communication activity", Ph.D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pp.1-106, 2008.

- [52] J. Kim, M. Lee, "The effect of star-entertainer imitation behavior on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0, No.4, pp.201-210, 2002.
-

김 장 현(Jang-Hyeo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의류학석사)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예술학 박사)
- 2019년 8월 ~ 현재 : 디자인 팩토리 대표

<관심분야>

패션디자인, 스포츠패션디자인, 디지털패션디자인